



베제클릭 석굴 외부 모습.



고창고성 사원 강당.



베제클릭 가는 길의 화염산.

찬란한 불교문화의 흔적 고스란히

법사가 사하르트 사원에서 소승 교화를 최상으로 여기는 목차국과 논쟁을 벌여 그를 압도했다고 전한다.

꼭 꺼진 땅, 투루판

쿠차 시내 박물관 등을 둘러본 후 투루판으로 향했다. 중간에 있는 쿠얼러(庫爾勒)에서 1박 후 철문관(鐵門關)과 보스딩(博斯騰) 호수를 둘러보고 투루판에 도착했다. 투루판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자 숨 막히는 더위가 느껴졌다. 투루판은 해발 100m도 안될 뿐 아니라 '투루판'은 '꼭 꺼진 땅'이라는 의미라 한다. 주변이 큰 산맥들로 둘러싸인 분지다. 여름 최고 기온이 50℃ 가까이 올라가는 중국의 대표적 불가마 지역이고, 1년 강수량 10mm에 증발량이 2500mm인 초(超)건조지역이었다. 이런 상황이나 <서유기>에 나오는 화염산이 이 지역에 있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다.

투루판시 서쪽에 위치한 교하장원(交河莊園) 호혈에서 1박 후 투루판 시내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고창고성(高昌古城)으로 향했다. 북쪽으로 화염산이 바라보이는 지역에 자리한 고창고성은 5세기 중엽 고창국이 성립된 이후 왕성으로서 크게 발전했다. 고창국은 처음 흉노족 출신 저거씨(沮渠氏)가 건국했으나 5세기말 국씨(麴氏)가 왕위를 차지했다. 고창국은 불교 후원에도 적극적이었다. 열정만으로 시작했던 현장 법사의 인도구법 여행 최대 후원자도 고창국왕 국문태(麴文泰)였다.

고창고성 주변에는 국씨 왕조 시대의 중심 사원으로 현장 법사가 한 달간 머물며 <인왕경> 등을 강의

한 사원이 남아있다. 인족 깊은 곳에 불전(佛殿)이 있고, 중앙 마당 좌우에 강당과 승방이 자리한다. 강당의 벽과 천정이 만나는 네 귀퉁이는 등골게 처리했다. 안내인은 "소리가 잘 퍼질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선굴이 많았던 토욕구 석굴

고창고성을 나와 동쪽으로 10여km 떨어진 토욕구 석굴로 향했다. 토욕구는 화염산 중 한 협곡의 명칭으로, 협곡 입구에는 오래된 위그르 전통마을인 마자촌이 위치했다. 마자촌은 마을입구 이슬람교 성인의 무덤(=마자, Mazar)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무덤의 주인 공은 7세기 이 지역에서 이슬람교를 전파한 사람이었다. 마자촌의 위그르인 전통 가옥들을 보면서 협곡 안으로 20분쯤 걸어 들어가니 협곡 안쪽에 석굴이 나타났다.

석굴은 협곡 깊숙한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과거 좋은 자연환경으로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들면서 선인(仙人)이 거처하는 이상적 수행처로 이름이 높았다는 이야기가 실감됐다. 석굴은 협곡의 양쪽에 모두 94개가 확인됐고 그중 46개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다. 고창국 성립 직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석굴은 불교가 널리 신봉되던 10세기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특히 당나라 때 많은 선굴(禪窟)이 만들어졌다.

토욕구 석굴에는 원래 많은 벽화가 장식돼 있었지만 서구의 탐험대, 특히 독일인들에 의한 약탈로 대부분이 없어져 현재는 단지 8개 석굴에서만 벽화를 볼 수 있다. 대부분 석굴은 천정과 벽을 천불(千佛) 그림

으로 메우고 있었다. 화려한 색채로 석굴을 가득 채운 천불도는 대단히 아름다웠으나, 안타깝게도 이슬람교도에 의해는 부분이 훼손된 것이 많았다.

벽화가 아름다운 베제클릭 석굴

토욕구 석굴을 나와 고대 투루판인들의 무덤인 아스타나모지를 둘러보고 북쪽으로 10km 떨어진 베제클릭 석굴로 향했다.

베제클릭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된 집'이라는 위그르말이다. 수많은 아름다운 벽화가 장식된 석굴 성격이 잘 표현된 이름이었다. 토욕구 석굴보다 조금 늦은 국씨 왕조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14세기 이슬람화 되기까지 조영이 계속됐다. 확인된 83개 석굴 중 40개 이상에 벽화가 남은, 투루판 지역에서 벽화가 가장 많은 석굴이다.

초기 벽화는 중국 미술의 영향이 강했지만 9세기 중엽 위그르 왕조 등장 후에는 위그르풍 그림으로 바뀌었다. 벽화 내용도 대단히 풍부했다. 서역의 석굴에 많이 등장하는 천불도를 비롯해 <약사경> <관무량수경> 등 경전의 변상도와 공양자, 비천상 등 그림의 주제가 다양했다. 특히 석가모니가 전생에 과거 부처님들에게 공양하는 모습을 그린 과거불공양도가 많이 그려져 베제클릭 석굴을 대표하는 벽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과거불공양도를 서양학자들은 '서원화(誓願畫)'라 부르지만, 중국학자들은 그림 내용이 <불본행경(佛本行經)>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불본행경변상도'라 부른다.

베제클릭 석굴의 과거불공양도 중 일부가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에 소장돼 있다. 벽화는 20세기초 일본의 오토타니 탐험대가 약탈해 일본 강점기 총독부박물관에 소장했던 것으로, 제15굴에 있던 그림의 일부분으로 확인됐다.

같은 그림 나머지 부분 중 일부는 영국인 스타인에 의해 약탈돼 인도 뉴델리 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같은 그림의 일부분이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과 영국 탐험대에 약탈돼 각기 그 식민지였던 한국과 인도 박물관이 소장 중이라는 사실은 우연치고는 의미심장하게 생각된다.

최근 국내 일부 인사들이 국립중앙박물관 벽화를 원래 자리에 반환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식민지였던 한국과 인도의 박물관이 그림을 반환해 원래의



키질기하 석굴.

벽화를 복원한다면 과거 제국주의 열강의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현재 열강의 박물관에 흩어진 벽화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베제클릭 석굴은 원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된 집'의 본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다.

베제클릭 석굴은 불교 벽화만 그려진 것은 아니었다. 제38호굴은 마니교도들이 만든 석굴로 흰옷을 입은 마니교 신도들 그림이 그려졌다. 10세기 급작스레 사라진 마니교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대지를 깎아 만든 교하고성

베제클릭 석굴을 나와 투루판 유적 답사 마지막 장소인 교하고성(交河古城)으로 향했다. 교하고성은 기원전 2세기경 존재했던 차사전국(車師前國)이라는 투루판 원주민 국가의 도성으로, 서역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도성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본 교하고성은 지금까지 본 어떤 도성과도 다른 독특한 모습이었다. 성벽을 쌓아 만든 성이

아니라 아르나즈강이 두 줄기로 나뉘었다가 합쳐지는 지역에 약 30m 높이를 우뚝 솟은 대지를 깎아 만든 도시였다.

성모양은 버드나무 잎과 같은 모양으로 남북 길이 1700m, 동서 최대 폭 300m로서 면적은 고창고성보다 조금 더 컸다. 강이 성 전체를 싸고 흐르고, 30m 깎아 지른 절벽으로 된 천혜의 요새였다. 성 출입구는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는 남쪽 문으로 이 역시 강을 넘어 갈 수 있었다. 성의 건물 대부분은 평지를 파내 만든 것으로 대형 건물인 관청과 사원들만이 흙을 쌓아 만들었다. 세계 건축사에서 다시 찾길 힘든 특별한 사례로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성은 마을 대로 돌아다닐 수 없고 반드시 지정된 보도를 걸어서 다니며 관람해야 했다. 성 중심부의 대형 사원 유적이 은 당시 불교신앙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40℃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 교하고성을 나온 일행은 모두 탈진한 상태였다. 이번 쿠차와 투루판 지역 불적 답사는 이렇게 끝났다.



키질 석굴 미술실업도

사무직 모집

경기도 일산 소재 사찰입니다.

불심이 견고한 사무직 직원(남·여 각 1인)을 모집합니다

※ 사찰에서 숙식 환영

전화 031)901-1954
www.jangansa.co.kr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장안사

다들 키메에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을 쳐보세요!
원주생식 100%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100% 원산지
ISO9001품질인증업체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과 정성, 자연건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연이 기르려준 그대로의 방법으로 만들어 기르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p>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p> <p>원주생식은 100% 원산의 농산물, 원산의 채소, 원산의 과일 등 신선한 농산물을 원산지에서 직접 채취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자연이 기르려준 그대로의 방법으로 만들어 기르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p> <p>▶ 1kg 118,000원 × 600g 2개입 80,000원</p>	<p>곡류 50%를 발아시킨 원주발아생식</p> <p>원주발아생식은 발아 과정을 거쳐 영양을 극대화한 곡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주생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p> <p>▶ 1kg 118,000원 × 600g 2개입 80,000원</p>
<p>검은콩, 검은깨, 검은팥의 영양 원주흑선식</p> <p>100% 원산의 원두를 원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여 원주흑선식을 만듭니다. 원주생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p> <p>▶ 1kg 118,000원 × 600g 2개입 90,000원</p>	<p>한약재가 듬뿍 들어있는 명품 참생식</p> <p>원주참생식은 원주생식과 함께 영양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원주생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p> <p>▶ 1kg 118,000원 × 600g 2개입 90,000원</p>

원주생식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요구르트 1병 + 우유 200cc + 원주생식 1스푼 + 원주생식 1봉

주문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촌1동 신 29-3 우체국 703314-01-001873 (매곡주·무상사) **소비자 상담실 (053)958-5921**

대웅전 건립불사

천선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바랍니다

행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진기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셔서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께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어갈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선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관세음보살 손금 (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원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택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족, 만시행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전, 삼재발산 관세음보살님 병고역년 일시소멸

확대[앞] 확대[뒤]

※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질 : 순금 22K, 케이스 : 케노텍(항공기 유리소재) / 크기 : 가로 2cm X 세로 3cm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100번지 각원사 해일 합장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